

참고 도서.

Bernard Brandon Scott, “Am I not Doing You Right?:” in *Hear Then the Parable* (Minneapolis: Fortress, 1989), 281-298.

William R. Herzog II, “Blaming the Victims of Oppression: The Parable of the Laborers in the Vineyard (Matt. 20:1-16):” in *Parables as Subversive Speech*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4), 79-97.

A. 포도원 비유와 보상(reward)—두 가지 다르게 읽기

- 앞 절(19:27-30)과의 연계성 (for...).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만, 중간에 비유가 삽입—

마태복음	마가복음
19:13-15 어린 아이	10:13-16 어린 아이
19:16-30 부자 청년	10:17-31 부자 청년
20:1-16 포도원 주인 비유	
20: 17-19 3번째 수난 예고	10: 32-34 3번째 수난 예고

- 막 10: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마 19: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20:16)
- 주인 (οικοδεσπότης; 12* 모두 공관복음에만)—①하느님 (좋은 뜻=> 마 10:25; 13:27, 52); ②patron-client 체제—악덕 지주 (나쁜 뜻); 포도원 (이사야 5:1-7)

1. 보통 이해

- 주인=> 하느님; 불평하는 일꾼=> 뭔가 나쁜 역할 (고로, 바리새인 등 유대인=> 후기 기독교적 관점)
- 한 시간만 일하고 같은 품삯을 받은 이들=> 이방인/기독교인=>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감. 고로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되고....
- 스콧(Scott)가 보는 이런 이해의 전제/문제점: “The parable finds its *Sitz im Leben* in Jesus’ debate with the scribes and Pharisees, and thus justifies his association with the outcast represents the free gift of grace associated with the kingdom’s coming” (Scott, 283). “... the standard reading fails because it does not ask why the parable deliberately antagonizes a hearer. Why create such a strong impression of injustice? Any successful reading of the parable must answer that question” (Scott, 284).

2. 다른 이해

- 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들 현실). 과연 정당한 계약이었나? => See vv. 2 (one denarius), 4-5 (no contract), 7 (nothing?). A denarius => good only at a *subsistence* level. (not generous!)
- 주인 행실의 특이성. 보통 지주는 포도원/밭 도시에 주둔. 일꾼을 소집함은 가신(retainers)의 할 일.
- 주인의 등장은 분쟁의 핵심이 가신들과 하루살이 일꾼과의 대립이 아닌, 보다 근본적으로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지배체제에 대한 불만 (“마가복음과 신학다시하기”=> 2 과, “하느님나라 vs. 로마제국”)
- “It is possible that the introductory phrase is meant ironically or sarcastically: ‘So this is what the reign of heaven is going to be like... more of the sam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erzog, 97).
- 교훈이 있다면, 일터로 초대(invitation)가 열려 있다는 점. 임금(은혜?)의 균일화가 아님.

B. 하느님 나라에서 정치, 경제, 생활지침

1. 다스림이 아닌 평등원칙

- 제자들 간의 분쟁 <= 세상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
- 세상의 행복/구원의 논리란? 20:25.

2. 예수의 원리

- 큰 자와 섬기는 자가 구별 없는 세상=> 제도(혹은 임금)의 균일화가 아님 (cf. 고전 12:29-31)
- 예수도 이 대(大) 원칙에 따른다. 예외가 아니다.
 - 10:28 인자가 ... 것 처럼 (ὡσπερ; just as) <= 막 10:45 (인자도/역시...)
 - 섬김, 곧 목숨을 버림/헌신=>섬김의 신학을 살아냄. 이런 섬김의 삶이 지배신학—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학(“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값/값/복음)--과의 차이.